

● 바오로가 최고 의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양심 있는 행동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

비양심적인 행동은 도덕적인 결함을 갖게 된다. 그런데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뇌 구조를 가졌는지 자못 궁금하다.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걸까. 양심을 파는 일은 자신도 남도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 양심은 그 사람의 얼굴과도 같다. 양심을 저버리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